‘명상의 모든 것’ 동국대서 만난다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오는 10월 개막

13~15일, 학술 콘퍼런스 중심
20~22일, 28개 체험부스 운영
동국대 개발한 K-명상 소개도
전문 명상자료 4개 국어 제공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지나며 전 세계적인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상이 다시 떠오른 현대사회.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아가는 지금,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명상의 모든 것을 망라한 명상엑스포가 찾아온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오는 10월 13~15일과 20~2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대 및 온라인에서 ‘명상,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한다. 지난해 하버드 의대 IMP(Institute for Meditation and Psychotherapy)와의 공동주최로 비대면 형식의 수준 높은 강연에 초점을 맞춘 명상엑스포는 올해 주제인 ‘일상’에 맞춰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막부터 13~14일을 장식하는 학술 콘퍼런스는 ‘명상과 다르마’ ‘명상과 일상 수행’이 주제다. 미국 동부에서 활동하는 텐진 프리야다르시 린포체의 기조연설을 기작으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간화선 기조강연’ △인도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의 ‘팔정도 수행’ △영국 에도 쇼닌의 ‘명상과 사성제’ △캐나다 르네트 몬테이로의 ‘여기에서 시작하는 마음챙김’ △독일 비구 아날라요의 ‘명상과 공’ 등 총 6개의 세션이 열린다.

15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는 진행자와 전문 패널이 명상을 주제로 대담에 나선다. 세계 명상 트렌드와 불교 사띠수행의 원리, 명상과 웰니스 산업과의 관계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또 이날 오후에는 비대면 · 대면을 혼합해 AI, 메타버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명상기기 등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명상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팔정도 광장에 설치된 세계명상 체험부스 조감도.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28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은 20~22일 펼쳐진다. 오프닝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체험 가능하며, 팔정도 광장에선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영되는 국가별 명상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미국 하와이, 티베트, 독일, 일본, 중국 · 대만, 프랑스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팔정도를 형상화해 팔각 모양의 목공 돔 부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명상 첨단테크 기기 △남산 걷기명상 △전통 한의학과 명상 △셀프아트 명상 △유학생 명상 △향기 명상 △고요힐링명상 △내 몸 밸런스 찾기 △명상 포토스팟 △마음바다 쓰기명상 △차 명상 등의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명상엑스포에서는 일상에서 여러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동국대 자체 개발 명상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K-청소년 하루 명상과 K-청소년 치유 명상 프로그램이 그것. 동국대는 K-명상 보급에서 대상자를 특정하고 방법론을 구체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한편, 설계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모델링을 통해 정통과 응용이 융합된 개발 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동국대가 최초로 개발한 명상 아카이빙 프로그램 ‘명상도서관’은 명상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상도서관은 협회, 기관, 전문잡지, 신문 등으로 소개된 각종 명상 자료를 4개 언어(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로 제공한다. 자료는 동국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7월 6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하면서 직접적인 명상 체험의 기회가 보다 중요해졌다”며 “명상엑스포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명상센터 건립과도 맥이 닿는다. 명상 프로그램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행선연구원 15일 제15회 계절발표회

‘교재로서 한마음요전’ 주제 등

종교교육 교재로서 〈한마음요전〉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1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법우 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이 ‘일본 정토종 종조 호넨(法然)의 보리심관(菩提心觀)’을, 김은영 교수(동국대)가 ‘종교성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한마음요전〉 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원영상 교수(원광대), 이석환 교수(동국대), 김영래 박사(고려대), 유성욱 교수(강원대)가 참여한다.

또한,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사’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대구시립예술단 자문위 폐지 유감”

조계종 종평위 · 중앙중회, 홍준표 시장 비판

대구시의회가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가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가결하자 자문위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불교계서 잇달아 항의 성명이 발표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는 7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과 1년 반 전에 만든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말 한마디로 폐기됐다”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대구시립합창단이 그동안 공연에서 60%~90% 비중에 이를 정도로 찬송가를 선보여 종교편향 논란이 발생했다는 데 주목했다. 종평위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2021년 12월 자문위 설치조례를 개정해 운영했다”며 “하지만 자문위 폐지로 시립합창단의 퇴행과 종교간 차별에 대한 어떠한 방지책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자문위의 재설치 △대구시 산하 기관의 종교편향 방지책 마련 △시립합창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며 “대구시민의 정서적 불편함이 가중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져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7월 3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도 성명을 통해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선광 스님은 성명에서 “불교계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유보를 요청했지만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했다”며 “종교 화합 및 갈등 방지를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광 스님은 “홍준표 시장은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라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4대 종교인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교단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상임대표 양기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위원장 인영남), 원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오광선)는 7월 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4대 종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4대 종교인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철회와 대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4대 종교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 주장을 답습하며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묵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치계는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머리를 모아 연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 △일본의 투기 계획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철회 촉구 및 대안 강구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가 면죄부나 정당성 부여하지 않음 등을 한일 양국 정부에 요청했다.

사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며 “근시안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결정을 할 경우, 과보는 무겁게 다가와 후손의 고통으로 전가됨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정부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조계종 사노위도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계율수행 콘텐츠 영상으로 만나요

조계종 포교원 개발 공개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계율 수행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행 콘텐츠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5대 수행법(염불 · 간경 · 참선 · 계율 · 보살행) 동영상 콘텐츠 개발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콘텐츠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유튜브 조계종포교원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5분 36초 분량의 계율 동영상에서는 기존 한문 형식의 원론적인 설명을 탈피하고 현대인의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도입, 보다 친근하고 설득력 있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불투도(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에서는 다른 이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다거나 사무실에서 커피믹스 등을 가져가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안으로 마지막 남은 ‘보살행’ 수행 동영상을 마무리해 5대 수행법 동영상 콘텐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5대 수행법 콘텐츠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02-365-7747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대만 5일
▶불광사-법고산사-자제공덕회-자항사-101타워
▶1,490,000원 부터

베트남+캄보디아 6일
▶인간이 만든 신의 도시 앙코르와트
▶1,490,000원 부터

일본(오사카/나라/교토)
▶백제 불교문화가 남아있는 관서 지역 순례

치앙마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둔 [도이수텝]

인도네시아
▶세계7대 불가사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사원]

*출발일, 인원수, 항공, 호텔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